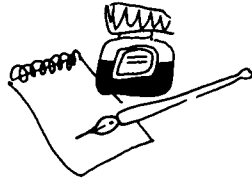


# 편집 후기



어떤 일을 하든 어려움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본지의 발간업무에 만 1년을 지내오는 동안 그 장애로가 많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면 '특집'란에 대한 소재의 창출이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편집계획을 잘 때쯤 되면 벌써 몇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食不甘味, 불면, 두통 등등.

이궁리 저궁리 다 짜내어 계획을 마련하고 원고를 청탁하여 받아오면 여기서 또 한차례의 번뇌를 겪는다. 그 원고들이 반드시 당초 계획한 방향으로 되어 오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는 곳에서만 성취감, 보람의 희열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게 결국은 인생인 것을. 그래서 오늘도 나는 뛰고 있다. 高遠의 경지를 향해서.

본지에 기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결실의 가을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崔>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 농부가 방울방울 흘렸던 땀의 대가인 결실, 이젠 마지막 수확을 위해 낫자루권 손에 더욱더 힘을 주어야 할 때이다.

올가을은 국내적으로 매우 뜻깊은 계절로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우리의 숙원인 한강이 4년여의 공사끝에 준공을 보아 말끔히 정리된 강물위로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다.

「방재와 보험」의 운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여기 저기 흩어진 사식조각, 원고지, 사진들이 즐비하다.

이젠 우리도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한다. 편집OK! 사진자료 OK! 교정 OK!.....

온 산천에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하면 서둘러 주홍빛 감을 따야한다. 무서리가 내린뒤에 따 감은 너무 불려 풋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다음호를 준비해 보자. <秦>

##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내용

-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제언과 건의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화재예방에 관한 제언과 건의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폰트 등 문예작품

### □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 防災와保險

<등권 제31호>

1986 / 가을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마-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6년 10월 1일

인쇄 / 1986년 9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회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